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57호 【루게 제25035호】 주제104 (2015)년 9월 14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평도에 무한히 충직한 선군청년전위들의 열화와 같은 애국충정과 영웅적투쟁, 창조적지혜와 불같은 열정에 떠받들려워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청춘기념비, 청년강국의 상징으로 건설되고 있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가 완공의 날을 눈앞에 두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의 지휘성원들과 해당부분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이곳 건설장소를 찾으시어 발전소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당창건 일흔둘까지 공사를 완공할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자체보장대책도 세워주시였을뿐만 아니라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뜻깊은 그날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겨안은 청년돌격대원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달려온 인민군인들과의 긴밀한 군민협동작전밑에 긴장한 전투를 벌려 지난 10년간 진행해온것보다 더 방대한 건설과제를 불과 너달 남짓한 기간에 해체함으로써 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돌격대지휘성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1호발전소 인제공사를 지난 8월 28일 청년절을 맞으며 완공하였는데 백두산에서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라고, 지난 4월 자신께서 발전소건설장을 다녀간 때로부터 120여일간 낮과 밤이 따로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세상을 놀래우는 영웅청년화를 창조하였다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조선청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신화이라고, 우리 청년들은 모두가 영웅들이라고 하시면서 발전소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명명해

주시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사적표식비를 보시고 건설중에 있는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에서 발휘한 청년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양실의 이름을 백두산영웅청년위훈전시관으로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 인제, 2호발전소 물길굴과 발전기실, 조종실, 옥외변전소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높이 솟아오른 1호발전소 인제를 여러곳에서

보아주시고 인제우를 건너시기도 하시면서 멋있다고, 정말 웅장하다고, 미남자처럼 잘 생겼다고, 올려다보면 하늘 끝에 닿은 우리 청년들의 기상을 보는 것만 같고 멀리서 보면 당중앙을 응위하여 성세, 방패를 이룬 청년대군의 모습을 보는것만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이 쌓아올린 인제이기에 그 높이를 결코 측정단위로 잴수 없다고,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인제의 높이는 우리 청년들의 애국심의 높이, 청년강국의 높이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발전소인제우에 올라서면 그가 누구이든 시상이 절로 떠오를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

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영웅적기상과 위훈이여라고 하시며 한편의 시를 읊으시듯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제과우안 산중턱에 《청년증시사상 만세!》라는 구호와 《청년강국》, 《백두청춘》이라는 표어를 세웠는데 건설장소의 곳곳마다 나뉘어 있는 힘있는 구호들과 표어들만 보아도 당을 받들고 지지하는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총정의 마음을 읽을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호발전소 인제와 물길굴도 무심히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후한속에서 자연과의 전쟁을 벌린 청년들의 애국심에 머리가 숙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호발전소 발전기실과 조종실, 옥외변전소를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설비조립이 끝난데 맞게 하루빨리 시운전을 진행하며 1호발전소와 2호발전소를 정상운영할수 있도록 자동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통합조종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들의 수고가 많았다고 하시면서 대상설비생산보장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젖줄기인양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부터 삼지연군까지 뻗은 송전선과 송전소를 만족하게 보신 다음 군인건설자들이 침수지역 인민들을 위해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돌아보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